

## 문제 1

제시문 1,3,5와 제시문 2,4 는 인간 행위의 원인에 대한 견해에서 차이를 보인다. 제시문 1,3과 5는 인간은 오직 경제적 유인에만 반응하여 행위한다고 보는 반면 제시문 2와 4는 인간의 행위는 경제성으로만 설명될 수 없으며 사회적 압력과 여론 등의 다양한 사회적 요인의 영향도 받는다고 본다.

우선, 제시문 1에 따르면 인간은 가족을 포함한 모든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는 모든 행동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이기심에서 비롯된다고 논한다. 양육과 같은 행동도 비용보다 이익이 크기 때문에 하는 투자라는 것이다.

한편, 제시문 3은 이러한 인간의 이기적인 행동 성향을 바탕으로 관료제 사회를 설명한다. 관료들도 공익을 위해 행위하고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이 속한 조직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이러한 과도한 사익추구는 결국 공익의 감소를 초래한다.

제시문 5는 합리성의 등장배경과 그 의미의 변화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개인주의의 도래로 인해 자신의 이익을 자유롭게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해졌다. 따라서 현대의 합리성의 의미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개인의 선택이 내적 일관성을 갖는다.

이렇게 인간이 합리성을 바탕으로 경제적 유인에만 반응한다는 제시문 1,3과 5의 주장과 달리 제시문 2는 행동 경제학적 관점에서 인간의 행위는 완전히 합리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라고 논한다. 헌혈자에게 경제적 유인을 제공했을 때 오히려 지원자가 줄어드는 현상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인간의 행위는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 힘과 같은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요인들 또한 일련의 경향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예측가능하다. 그 경향성은 체계적이어서 정형화되지 않은 광범위한 인간의 행위도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제시문 2의 관점을 여성의 출산 사례에 대입하여 관찰한 것이 제시문 4이다. 제시문 4에 따르면 여성의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는 모방과 사회적 압력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따라서 개인의 행동이 항상 합리적인 것은 아니며 사회적 힘의 작용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

## 문제 2

제시된 자료와 표에는 자발적 기부행위에 관한 실험 방법과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실험참가자들은 일정한 금액의 돈을 제공받고 이 돈의 일부를 공동계좌에 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다. 공동계좌에 기부된 금액이 일정량을 충족시킨다면 그 총액에 상회하는 금액을 모든 참가자가 가질 수 있다. 이때 제시문 1,3,5의 관점처럼 인간이 사익만을 추구하는 합리적 존재라면 아무도 공익, 즉 공공재의 공급인 기부를 하지 않을 것이다. 기부하지 않는 금액은 개인이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개인은 무임승차의 유인을 받게 되고 배제성이 없는 공동계좌는 외부효과가 일어나게 된다. 과도한 사익의 추구가 공익을 저해시켜 공동계좌에 기부금이 없게 되는 것이다. 이는 기부총액에 상충하는 상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마저 놓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사익도 저해한다.

하지만 제시된 표의 결과에 따르면 인간은 이기심에 의해서만 행위하지 않는다. 기부비율이 두 실험 평균 35%에 이른다. 게임 이론의 예측과 달리 실험자들은 무임승차 하지 않고 협력하였다. 사익만을 추구하지 않은 것이다. 한편, 친밀한 같은 학과생끼리 실험이 진행되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을 때에 비하여 약 1.7배나 높은 비율로 기부했다(실험1 44% > 실험2 26%). 이를 보면 아는 사이라는 관계가 기부 비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또한 똑같이 다른 학과생끼리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실험 참여자들 사이에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약 1.5배 높은 비율로 기부 금액이 높게 나타났다(실험2 b-c 31% > 실험2 b-d 21%). 의사소통이 허용된 경우 사회적 관계의 영향력이 커진 것이다. 즉,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요인도 인간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사회적인 요인만으로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 순수하게 인간이 공익만을 추구하는 사회적 인간이라면 기부비율이 100%가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평균 35% 정도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공익보다는 사익을 우선시하는 경제적 인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간은 경제적, 사회적인 면을 모두 가졌다고 볼 수 있다.

### 문제 3

#### <자동차 보험 관련 상품>

제시된 표 <1>을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운전자의 손해 부담율을 감소하지만 자동차의 운 전보험료는 일정하다. 그 결과 자동차 사고발생건수는 손해 부담률이 30%였던 2005년에 비해 0%인 2008년에 약 3배가량 증가했다. 자동차 사고 총 처리비용 또한 약 10배에 이르게 급격히 상승했다. 이 같은 현상은 인간이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는 입장에서 과도한 사익추구의 폐해 현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사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개인이라면 손해 부담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점점 더 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이렇게 모든 개개인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운전을 하는 사익을 추구하면 결국 사고가 늘어나는 공익의 저해현상을 야기한다. 결과적으로는 개인의 안전과 생명까지 위협하므로 이러한 과도한 사익추구가 공익뿐만 아니라 사익까지 침해하게 된다.

#### <쓰레기 처리 관련 통계>

제시된 표 <2>에 따르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이 인상될수록 신도시의 쓰레기 발생량과 쓰레기 관련 예산 적자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쓰레기 봉투의 가격이 100원이었던 2006년에 비해 400원이 된 2009년에는 20%나 감소하였고 쓰레기 관련 예산 적자는 15억이 넘는 금액에서 0원이 되었다. 이 같은 현상은 인간이 합리적 경제인이라는 관점에서 설명이 가능한데 표 <1>의 자동차 보험의 사례와는 달리 사익추구가 긍정적으로 공익을 증진시키는 현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봉투가격이 인상됨으로써 개인의 쓰레기 처리비용이 증가하자 개인들은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쓰레기 배출을 줄인다. 이러한 쓰레기 감소가 사회전반에서 진행되면서 쓰레기 배출량과 그 관련 예산 적자가 감소하게 된다. 이와 같이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의 행동이 공익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문제 4

인간이 합리적 경제인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첫 번째 무상헌혈 캠페인은 헌혈량 부족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다. 인간은 사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행위하기 때문에 아무리 캠페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에게 명시적인 이익을 제공해주지 않는다면 실효성을 갖지 못할 것이다.

이에 반해 두 번째 보상정책은 합리적인 개인의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다. 자신이 제공하는 혈액의 가치보다 5000원이 더 크다고 간주하는 개인은 헌혈을 할 것이다.

이 입장에서 헌혈량을 늘리기 위한 또 다른 개선방안을 생각해본다면 헌혈증을 들 수 있다. 헌혈증은 헌혈을 했다는 증명으로 주는 문서로 나중에 위기 상황에 수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합리적 경제인이라면 미래 자신 및 가족 등의 위험에 대비해 헌혈을 한다는 투자를 할 것이다. 따라서 헌혈증은 합리적 경제인들에게 헌혈을 장려할 수 있는 좋은 개선방안이 될 수 있다.

한편, 인간은 사회관계적 존재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무상헌혈 캠페인은 사회관계적인 개인 의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대안이다. 무상헌혈은 헌혈을 하나의 숭고한 봉사행위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든다. 따라서 이타적으로 공익을 추구할 수 있는 개인은 헌혈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도우려 할 것이다. 또한 이런 봉사활동의 의도가 아니더라도 타인의 평판을 위해 헌혈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이는 개인에게 사회적 압력이 작용하여 헌혈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다.

반면에 보상정책에 경우 다수 개인들에게 오히려 거부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제시문 2의 스웨덴 사례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이타적 개인은 자신의 봉사활동에 대가를 받는 것이 모욕감을 느껴 헌혈의 양이 감소할 것이다. 만약 사회적 압력에 의해 헌혈하는 사람들도 사회적 평판에 경제적 행위로 인식될까봐 헌혈을 꺼리게 된다.